

해남군, 3개 체육시설 등 스포츠 기반 확충

383억원 투입 제2스포츠타운 복합체육문화센터 등 조성도

해남군이 군민 스포츠 생활 지원과 전문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기반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383억원을 투입해 제2스포츠타운을 비롯해 복합체육문화센터, 구교지구 근린생활형 체육관 등 3개소의 체육시설을 추진한다.

삼산면 평항리 일원에 8.8ha 규모로 조

성되는 제2스포츠타운은 도비 43억원 등 181억원이 투입된다.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올 상반기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제2스포츠타운은 정식규격의 축구장 1면과 야구장 1면, 복합구장 1면,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해남군은 우슬체육공원 내에 조성된 대단위 스포츠타운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요가 늘면서 제2스포츠타운 조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제2스포츠타운은 숙박과 음식점이 밀

집된 삼산면 인근에 조성되면서 대항사 및 인근 숙박시설과 5분여 거리에 위치해 동절기에 상권활성화는 물론 미남축제 개최와 연계로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복합체육문화센터는 해남읍 신안리 부지 일원에 138억 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2540㎡로 지어진다.

장애인 특화형 체육관과 작은도서관을 복합화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같이 즐길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을 조성할 계

획이다.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체육시설이 부족한 해남읍 구교리에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추진된다.

생활체육활동과 문화예술 행사, 비상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과 청소년상담센터를 64억원을 들여 연면적 2990㎡ 규모로 건립한다.

명현관 군수는 “군민과 전문 스포츠 선수 등 수요에 맞춘 스포츠 활동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요리 체험 지도사 양성 무안군, 융복합 활로 개척

무안군(군수 김산)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단장 김명진)은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에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하나로 요리 체험 지도사(강사) 양성 교육 개강식 및 1차시 교육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론 및 실습 과정(견학 포함)으로 구성돼 총 9주간(매주 목요일) 이뤄진다.

주요 내용은 수업계획안 작성, 요리 체험의 다양한 접근 등 교수법을 다룬 이론 교육과 고구마를 활용한 피자, 빵, 타르트 등을 만들어보는 요리 실습과 관련 견학이 진행된다.

수료 후 방과후학교나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지도사(강사)로 무안 고구마 활용 요리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안군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은 현경면 양화리 일원에 전략품목용 복합산업센터를 신축해 군고구마 페이스 트를 일일 1.5톤 규모로 생산하는 설비라인을 갖출 예정이다.

무안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061-454-8112)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무안=김행언 기자

농수산물 유통관계자 초청투어 진도군, 각 시설 방문

진도군이 우수한 농수산물 수출 등 판로 확대를 위해 농수산물 유통 관계자들을 초청, 팜투어를 실시했다.

29일 진도군에 따르면 팜투어는 △티몬 △오마켓 △메가마트 △이랜드김스클럽 △BGF리테일 등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8~29일 진행됐다.

진도군의 대표 농수산물인 쌀, 대파, 울금, 김, 전복 등의 생산지와 가공시설 등을 방문했다.

진도군 농수산물의 상품 개발, 유통 방향 개선 등을 위해 유통 관계자와 농·수산물 생산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전남 최초 학교돌봄터 1호 개소 신안군, 압해동초에



신안군은 압해동초등학교에서 전남도 최초 학교돌봄터 1호인 ‘압해동초 학교돌봄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학교돌봄터는 이번 달 130㎡ 규모로 문을 열었으며 학기 중에는 방과후-오후 8시, 방학 중에는 오전9시-오후8시까지 운영한다. 학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박우량 신안 군수는 “전남도 최초로 개소된 학교돌봄터를 계기로 가정과 일이 양립할 수 있도록 돌봄행정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농기계 임대사업소 휴일근무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완)가 본격적인 봄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임대사업소 4개소(본소·칠량분점·도암분점·작전분점) 모두 토요일 연장 근무를 한다. 토요일 휴일 근무는 4월~6월까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다. 임대사업소 당 1명의 근무 인력이 배치된다.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임대 3~4일 전 미리 유선 연락이나 방문,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농기계임대 앱 등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용 당일 혹은 전날 오후 5시 이후 방문해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토요일에도 농기계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작물 시기적절한 파종과 농가 일손부족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물가 상승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 6월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해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동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휴일 근무 기간에도 많은 농업인들이 불편함 없이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결핵 예방 주간 캠페인 성료 강진군보건소

강진군보건소가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 ‘결핵예방 주간’을 운영했다.

29일 강진군보건소에 따르면 결핵예방 주간(20~24일) 동안 전광판을 통해 올바른 기침 예절 등 결핵 예방 홍보문구를 송출하고 보건소 로비에 판넬 및 배너를 전시하는 한편 강진노인대학 수강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결핵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결핵의 확산을 막고 사회적인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군내버스터미널과 읍시장일대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했다. 현장에서 홍보 물품과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기침 예절 및 손 씻기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생활 속 결핵 예방 수칙 등을 홍보했다.

2주 이상 기침을 하거나 발열, 체중감소, 피로 등 증상이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결핵 검진은 보건소에서 연중 무료 검진이 가능하므로 결핵 의심 증상이 있을 때 검진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결핵 검진은 강진군 보건소 결핵실(061-430-5233, 5229)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김윤복 기자



강진군농업기술센터가 영농철을 맞아 토요일 연장 근무를 시행한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제공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 주택세제 특례 적용

주택개발 사업 활기 기대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주택개발 사업이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29일 해남군에 따르면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도시지역에 해당되어 도시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황임에도 읍면 농어촌주택에 부여해주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20일 완료됨에 따라 세제특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기업도시의 경우 공시지가 3억원 미만의 주택을 신규 취득하면 기존 주택 양도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토록 규정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주택개발 사업과 투자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산이면 구 성리 일원 2089만㎡(632만평) 부지에 오는 2025년까지 사업비 1조 4400억원을 투입해 관광, 주거, 일자리, 의료의 기능을 갖춘 인구 3만6600명의 자족도시를 건설하게 된다.

해남=전연수 기자

영암 왕인벚꽃길, 경관개선사업 완료

영암군은 30일 개막하는 ‘2023 영암왕인문화 축제’ 개막을 앞두고 추진한 왕인벚꽃길 경관개선사업을 완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영암 대표 관광지인 구림마을에서 왕인박사유적지까지 가는 벚꽃길은 ‘아름다운 100리 벚꽃길’로 유명하다.

하지만 오래된 벚꽃나무 뿌리 용기로 인해 노면이 고르지 않고 인도 보도블럭 또한 울퉁불퉁해 불편을 느끼는 보행자

들이 차도로 걷는 등 위험에 노출됐다.

곳곳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구간이 많아 밤이면 보행자뿐 아니라 차량 운전자들도 어둠을 호소하던 위험스런 도로였다.

이번 사업은 영암군이 전라남도 관광지 및 지역상권활력 경관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6000만원을 확보해 추진됐다.

지난해 시설설계 용역에 이어 올 1월

사업에 착공, 인도 보도블럭을 교체·정비하고 좁은 인도 구간을 확장했다.

데크로드 14개소 설치, 지중화 전기공사를 통한 74개 경관조명과 방향 안내 동판 3개 제작설치 등을 통해 역사마을의 품격에 걸맞은 아름답고 안전한 길을 완성했다.

노후된 울타리 난간을 주변 풍경과 어울리는 원목으로 교체하고 태양광 소등이 켜지는 123m 난간구간을 전면 정비해 왕인벚꽃길을 이용하는 보행자와 관광객들에게 조화로운 벚꽃길과 아름다운 야경을 제공하게 됐다.

영암=이병영 기자

신안군, 모바일 걷기앱 활용 챌린지 운영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걷기 실천율을 높이고 건강증진을 위해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통한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안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챌린지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휴대폰에서 ‘워크온’ 앱 다운로드 → 신안군 걷기 커뮤니티 가입 → 4월 챌린지 예약 또는 참여하기 버튼 클릭 → 챌린지 기간 총 20만보 걷기 → 챌린지 달성 후 응모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매월 목표 걸음 수 20만보(1일 1만보 인정) 걷기를 달성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받을 수 있다.

신안군관계자는 “걷기 운동 생활화를 위해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안=홍일갑 기자